

# 전기학회 편집사업을 되돌아보며



오 명 환

(편집위원장, KIST 정보소자연구센터장)

1994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대한전기학회의 편집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올 한해동안 학술 활동과 발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학회 논문지의 논문 게재 편수가 매월 13편에서 20편으로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논문의 질과 형식도 보다 더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논문 게재 증편을 위하여 크나큰 관심과 획기적인 예산 증액을 허락하여 주신 학회장님과 학회 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편집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 심사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하여 많은 투고자들과 심사위원들께서 개선을 요망하신 결과, 편집위원회의 제반 규정과 논문 심사방식을 조정하고, 우편 통신에 의존하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판정 업무를 팩스통신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제는 논문 심사 기간을 평균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회원들의 투고 논문이 보다 신속하게 게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모여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신 담당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학회지와 논문지의 인쇄, 출판을 현재와 같은 활자 인쇄 방식으로부터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 정확한 카메라 복사 시스템이나 전자 출판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제안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새로이 구성되는 편집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지의 표지 도안과 인쇄 표기 스타일을 삼도색으로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편집위원님들과 사무국 편집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에는 우리 전기학회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계열의 모든 학회발간지들을 국제적인 SCI등록 발간물로 인증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영문 논문의 합동 편집 및 발간을 위한 관련 학회의 의견 수렴이 있었던 것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무척 아쉬워했던 일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1993년도에 논문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수한 논문을 추천해 달라는 수차례의 학회측 안내가 있었지만, 마감일 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된 논문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겸손한 국민성 때문인지 혹은 타인을 추천하는 일에 다소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는 탓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학회 회원님들과 학

술분과의 간사장님들에게 섭섭함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1994년도에는 논문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 및 간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논문대상은 물론이고 우수논문상을 여러 분야에서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공지와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수준의 논문들을 수상후보논문으로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95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저에게 항상 격려의 말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편집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학회의 편집 사업을 위하여 지방에서의 장거리 출장을 마다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은웅 부위원장님을 새로운 편집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의 제반업무로 바쁘신중에도 편집사업과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도와주신 사무국의 진국장님과 신석순씨 그리고 전필준씨와 김해영씨 및 황교란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활기찬 편집위원회가 되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편집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전기학회와 회원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